

비큐나(Vicuna)(2)

또한 페루정부는 비큐나 섬유의 유통과 판매를 위하여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안데스산맥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하여 두 곳에 원모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 국제적인 컨소시엄은 워싱턴조약에 따르는 비큐나 섬유의 유통과 판매를 인가받아야 하며, 이탈리아의 'Zenia Group'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비큐나 섬유의 굵기는 동물섬유 중에서 가장 가느다란 10~14 μm 정도로 가늘며, 길이는 2~5 cm, 2년에 한번 채모하기 때문에 약 5 cm가 된다. 이 채모는 인가받은 업자만이 털을 깎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 마리에서 채모되는 수량은 250~350 g으로서 연간 생산량은 약 6 톤밖에 되지 않는다(2009년). 이 면모에는 이따금 70 μm 이 되는 자모가 혼입되는데, 이것은 캐시미어와 마찬가지로 정모공정에서 모두 제거된다.

그러므로 성인용 코트 한 벌을 만든다고 하면, 1.5 kg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비큐나 원모를 원료로 환산하여 보면 1년에 약 4,000착 정도밖에 나오질 않는다.

동물섬유 중에서 가장 가늘고, 부드러우며, 광택이 좋은 데다 산출량이 적기 때문에 대단한 희소가치를 갖고 있으며, 세계 멋쟁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100 % 비큐나 오버코트 한 벌을 만들면 우리 돈으로 몇 천 만원이 되며, 이부자리를 만들면 그 보다는 훨씬 많은 억대의 가격이 될 것이다.

이 비큐나 면모가 하도 비싸니까 몸의 어느 부분의 면모냐에 따라 품질이 구분된다. 그러므로 우선 비큐나 양의 목, 등, 복부 부분에 해당되는 면모는 비큐나 색 즉, 담황색을 나타내며, 이것이 최고급품으로서 면모의 길이도 가장 길다. 배꼽 부분과 뒷다리 부분의 면모는 색상이 희미하며, 면모의 길이도 일정하지가 않다. 또한 배꼽 아래 부분과 뒷다리 안쪽, 그리고 머리 부분의 면모는 백색이긴 하지만, 자모가 상당히 섞여 있다. 가슴과 앞다리 부분의

털은 백색의 굵은 자모가 마치 에이프런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이 다른 알파카나 라마 등과 외견상 다른 점이다.

이러한 비큐나는 알파카나 라마 등과 같은 장소에서 사육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큐나 수컷이 방목 중의 알파카 무리에 들어가 알파카 암컷과 교배하여 나타나는 혼혈종이 있는데, 이것을 'Paco-Vicuna'라고 한다. 이것은 우연히 생긴 종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많지 않으나, 그 면모는 비큐나 면모보다는 굵으며, 알파카 면모보다는 가늘어 실크 같은 광택에 품질도 좋다. 그러나 이것도 2년 정도 이어지면, 그 이후에는 세월에 따라 알파카와 비슷하여진다고 한다.

이 비큐나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재봉 문제다. 말하자면 원단 값도 만만치 않지만, 봉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제일모직에서 만든 1PP(UP&UP, 최고 등급을 의미함) 모직물은 양복 한 갑(3 yds)에 1천만원 하는 것인데, 양복을 만들려고 재단에 들어갈 때 재단사의 손이 떨어져 순조로운 재단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 후지모직에서 나오는 한 갑에 3백만엔(약 3천만원)짜리 복지를 재단할 때의 손 떨림만큼이나 비큐나 복지도 재단이 어렵고, 재봉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복지로 포장한 채 선물로 돌아다니는 것이 비싼 복지의 소비패턴이다.

런던의 Savile Row 주문복 거리에서도 이 비큐나 복지로 코트를 만들 때에는 먼저 캐시미어 코트를 만들어 입혀 보고, 몸에 맞으면 그때 그 패턴대로 비큐나 코트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비큐나 제품의 봉제에는 국보급 기능사가 아니면 설불리 나서지 못한다는 선진국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니까 봉제 비용도 한없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비큐나 제품의 가격은 캐시미어 제품가격의 최소 10배가 된다고 한다. ♣ (공석봉)



<암석지대의 비큐나>